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h1>새고려신문</h1>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2022년 1월 28일(금) --(윤력 12월 26일)-- Пятница 28 января 2022г. № 3 (1197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월 1일은 음력설이다.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학생들의 공연.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사할린주, 최초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쿠릴 열도의 가장 큰 섬인 이투루프에서 첫 태양광 발전소를 준공했다. 새로운 전력 발전소는 레이도위 마을 근처에 위치하며 국내산 현대 장비를 갖추고 있다. 이 발전소는 지방으로 전기를 공급할 것이며, 계산에 따르면 디젤 연료 구매를 줄여 연간 1,500만 루블리의 지역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 태양광 발전소가 건설된 것은 쿠릴 주민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이라 할수있는 사건이다. 사할린 지역 최초의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대량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섬이라는 고립된 상태에서의 전력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며, 예산을 절약하고, 섬의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쿠릴 주민에 대한 전력 공급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이투루프 주민들에게 이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한다"고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강조했다.

레이도위 마을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는 약 4개월이 소요되었다. 발전소의 전력 용량은 250kW로 이 에너지는 620개의 태양광 배터리에 의해 만들어진다. 전력설비는 저장장치 없이 레이도위 디젤발전

소 공동망으로 직접 연결된다. 이에 따라 신설 발전소 가동 후 기존 발전소들의 필요 전력이 낮아져 연료절약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소의 첫 번째 점검 및 시험 운전은 이미 완료되었고, 모든 사항에서 문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발전소는 계획대로 2월에 가동될 것이며, 레이도위 마을의 일반 전력망에 연결될 것이다.

향후, 쿠릴열도에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새로운 연료(가스, 수소)를 기반으로 한 대체에너지 분야 기술 인가-이행을 위한 시험장이 조성된다. 따라서 섬의 풍력, 태양열, 지열 잠재력이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할린주는 러시아에서 대기중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첫 번째 지역이다.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대한 특별규제를 확립하기 위한 실험이 사할린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풍력, 수력, 지열 발전소가 이미 가동 중이다. 사할린 주는 5년 안에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할린 주정부 자료에서)

### <이즈베스트코위>매립지의 이동 분류장 2월에 가동

<이즈베스트코위>고형 폐기물 매립지에서 이동 분류선을 2월 10일까지 설치해야 하고, 또 한 장비 보관용 격납고 설치도 완료되어야 한다. 이는 매립지를 사찰한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정부 수상이 밝혔다.

고형 폐기물 매립지 이동 분류장 가동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나 준비 부족으로 가동이 시작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블라디미르 시도렌코 사할린 주정부 부수상과 나탈리아 쿠프리나 주택공공경리부 장관을 질책했다.

"2월 초까지 이동 분류장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폐기물 분류 작업 담당자 실무 교육 실시, 유즈노사할린스크의 고형 폐기물 물류 파악 과제가 있다. 이는 폐기물 분류장 시험 가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다. 제때에 작업이 완료되지 않으면 관계자들은 해고될 것이다. 우리 섬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시설을 방치하거나 운영에 비리가 생기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알렉세이 벨리크가 지적했다.

<이즈베스트코위> 이동식 분류장이 가동되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외곽의 기존 고형폐기물 매립장은 폐쇄할 계획이다.

새고려신문

### 2022년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2년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2루블리 84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 단신

#### 주한인협회, 1세 어르신들에게 설 선물 준비

2월 1일은 음력설이다. 이 날을 맞아 여 주한인협회에서 1세 어르신들을 위해 쌀 300포대(10kg) 전달에 나섰다. 또한 지난 주초에 주한인협회에 KIN(지구촌동포연대)이 해마다 제작해 보내주는 <세계에 하나뿐인 달력>이 도착했다. 이 달력은 쌀과 함께 전달될 것이다. 지난 22일(토) 결산컨퍼런스를 찾아온 지방한인회장들에게 다수 선물을 전달하였다고 전해졌다.

주한인협회는 1세 어르신들을 위한 설 잔치는 1월 5일 할 계획이다.

#### 나디르쉬나 선수, 전국 스노보드 평행 챔피언대회에서 1등

압자코보(바쉬키리아 공화국)에서 열린 러시아 스노보드 평행종목 챔피언대회에서 소피아 나디르쉬나는 평행 회전 종목에서 1위를 했다고 사할린주스포츠부에서 보도했다. 전날에 소피아는 평행대회전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이렇게 하여 챔피언대회의 우승자가 되었다.

그 전에 소피아 나디르쉬나 선수가 러시아 올림픽 팀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2월 8일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참가할 것이다.

#### 사할린 세관, 2021년 압수품 3톤을 국가로 넘겨

사할린 세관은 2021년에 320만 루블리 상당의 압수품 3톤을 해당기관들에 넘겼다고 세관 홍보실이 전했다. 이는 법원 명령에 의해 연방 소유물이 된 위반 물품 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에서 압수된 물건들이다.

310만 루블리 상당의 물품 대부분이 연방재산관리청으로 이관됐다. 이 가운데 수생생물자원이 553kg에 달하며 다수는 소비재, 자동차 부품 및 담배 제품이었다. 물수품들은 불법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수입해 반입하려던 물건들이다.

#### 사할린주, 코로나19 상황

사할린주 보건부에서 1월 26일 기준 COVID-19에 대한 통계를 발표했다. 현재 확진자 1,688명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538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다. 사망자는 629명, 입원 가능한 병상은 205개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220명이다.

백신접종자는 총 271,968명이며, 이 중 하루 접종자 수는 1차 접종자가 226명, 재접종(6개월 후) 1,171명으로 총 51,194명이다.

백신 재고량은 93,916회분이다.

사할린주한인협회 결산컨퍼런스에서

#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사단법인 회원에서 퇴출

지난 22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협회 결산컨퍼런스가 소집되었다. 회의에는 투표권을 가진 대표자 24명이 참가하고, 회의 의장으로는 주한인협회 오진하 고문, 서기로는 배영희 임원이 선정되었다. 회의 의제에는 2가지 문제가 올랐다. 하나는 2021년 협회 사업 보고, 두번째는 기타 문제가 올랐다.

이 두가지 문제로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발표했다.

지난해 사업 보고에서 운영위원회가 3번 소집되고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설명회 2번, 영주귀국자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특별법 개정 관련 회의 등을 했다고 하였다. 작년 여러 프로젝트 실시 4가지 대규모 지원금을 따냈다고 강조하고 큰 행사로는 <김치> 축제, <뽕세> 축제와 한인문화센터 15주년 기념행사 등을 개최했다고 상기시켰다.

1세를 위해 영주귀국 신청 관련 도움을 주기도 하고 대한적십자사와 밀접히 일해왔다.

또한 1세대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광복절 행사를 성대하게 기념할 수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쉬웠다.

회의는 2021년 협회의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타 문제에 들어가서 박순옥 회

장은 우선 소유물에 대해 말했다. 작년에 협회가 그란트 보조금으로 구입한 LED스크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기증한 사무기기와 차량을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주한인청년회의 소유물로 넘길것을 제안했다. 이 모든 것을 청년회가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노력에 의해 이 소유물을 받을 수 있었다고 박회장이 강조했다. 또다른 소유 관련 문제는 일본이 오래전에 기증한 봉고차였다. 너무 낡아서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폐차시켜야 한다고 박순옥 회장이 언급했다.

회의는 새 소유물을 청년회에 넘기기로 하고, 낡은 차량판매에 대해서는 기증한 일본측에 경위를 설명하고, 감사인사를 전하기로 했다.

이날 박회장은 자기가 5년간 회장을 맡는 동안에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와 유즈노사할린스크한인회 지도자들과 말이 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여러 사태도 벌어지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전 회장과 현 회장에게 운영위 회의에 초대해달라고 매번 요청해도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한인협회와 시한인회가 여러 문제에 대한 의견과 입장이 다름을 밝혔다.

올해 12월에 회장 임기도 끝나고 새 회장을 선정할 것인데 신임 회장 활동에 이 한인들이 큰 방해될까 봐 사단법인으로 주한인협회의 회원으로 있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를 주한인회에서 퇴출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새 정관에 따라 현재 지방한인회들이 대표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우글레고르스크시 한인들의 새 대표들을 선별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주한인협회 김홍지 고문은 "사할린한인역사에서 단체끼리 분열이 많았다. 주한인협회가 활동하는 동안 항상 한인단체들을 단결시키는 것이 목표 중 하나였다"고 하면서 단체내에서 아무리 싸워도

조직에서 내쫓는 제안은 주한인협회 지도부에서 하지 않았다면 컨퍼런스에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이결 먼저 협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라도 한번 논의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하였다. 김홍지 고문은 "우글레고르스크시한인회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에서 주한인협회와 화합하지 못하면 이 결정을 발표하고 회원에서 나갈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번 에 서두르지 않고 다음 12월에 있을

결산선거대표자 회의에서 이 문제를 내세우자"고 하였다.

뜻밖의 문제여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안영수 회장은 많이 당황한 것 같았다. 그는 "여러 사람, 단체들이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컨퍼런스의 결정에 따르겠다. 시간이 흐르면 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였다.

다수 가결(반대표 2)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를 회원에서 퇴출할 것을 결정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시와 우글레고르스크시에서 새 한인협회 대표를 선정하기로 했다.

\*\*\*

사할린주한인협회의 결산대표자 회의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를 퇴출시켰다는 소식을 알게 된 시민 일부가 새 시한인단체를 만들자고 했다. 이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사업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의하면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가 도시의 모든 한인들을 위해 활동을 해야 하고 주한인협회의 소식을 모든 도시 한인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한다. 시한인회는 이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사할린주한인협회와 화합할 새로운 단체 설립에 나선 활동가들은 22일-24일간 새 단체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180여명의 명단을 작성했다고 새단체설립발의그룹을 대표하여 지난 26일(수) 새고려신문사를 찾은 천영곤, 유나탈리아가 전했다.

(배순신 기자)

## 이 모 저 모

### 사할린 국립대학교, 동물을 돕기 위한 박람회 개최

사할린 국립대학교의 활동가, 학생들을 비롯한 자선 박람회 #도브로야르마르카의 참가자들에 의해 4만 루블리가 모금되었다. 박람회는 전통적인 러시아 대학생의 날 - 타피야나의 날에 즈음한 행사로서 1월 23일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쇼핑몰 "시티몰"에서 진행되었다고 사할린 국립대학교에서 보도했다.

총학생회장 마리아 포미트키나는 "사할린 국립대학교 학생연합위원회는 3년 연속으로 이 같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는 눈보라때 동물 사료가 바닥난 <개와 고양이> 보호소를 위해 모금했다"고 전했다. 모아진 금액으로 학생들이 직접 사료를 사서 동물보육원에 가져갈 것이다. 행사를 위해 학생들은 직접 베이커리 제품을 만들고 그림, 수공예품, 책을 판매에 내놓았다.

제1호 김나지야 10학년생인 정유미와 폴리나 랍추크는 직접 만든 케이크와 파이를 행사에 가져왔다.

"우리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항상 기쁘게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동물들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이 학생들이 전했다.

도브로야르마르카는 학생연합위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선행 마라톤' 일환으로 하는 행사 중 하나이다.

### Активисты СахГУ провели ярмарку в помощь животным

40 тысяч рублей смогли собрать активисты СахГУ, студенты и другие участники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ярмарки #ДобраЯрмарка, традиционно приуроченной ко Дню российского студенчества — Татьянинному дню. Прошла ярмарка 23 января в ТРК "Сити Молл"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общает СахГУ.

— Объединенный совет обучающихся СахГУ организует эту акцию уже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 рассказа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Мария Помыткина. — На этот раз мы собирали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для приюта "Пес и кот", где закончился корм для животных в период метели. На собранную сумму сами закупим корм и отвезем его в приют. Для ярмарки студенты изготовили своими руками выпечку, выставили на продажу картины, рукоделие, книги.

Так, десятиклассницы из гимназии №1 Тен Ю Ми и Полина Рябчук принесли на ярмарку самодельные кексы и пирожки.

— Мы всегд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ринимаем участие в та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 рассказали девушки. —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 оказывать помощь пострадавшим людям или животным.

#ДобраЯрмарка — одно из мероприятий "Марафона добрых дел",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объединенный совет обучающихся оказывает поддержку людям, находящимся в трудной ситуации.

### Сажалин 주민, 전러시아 눈의 날을 기념

사할린주가 전러시아 눈의 날 기념행사에 동참했다. 지역의 많은 도시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명절의 방문객들을 위해 즐거운 릴레이 경주와 마스터클래스, 장비 무료 대여 등이 준비됐다.

"고르니 워즈두흐"스포츠관광단지 방문객들을 위한 행사가 아침부터 시작된 가운데 방문객들은 원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할린 주민들을 위해 강사진이 함께하는 무료 수업이 진행됐다. 수업의 일환으로 초보 스노보더와 스키어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장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첫발을 내디뎠다.

익스트림 스포츠에 아직 도전할 준비가 되지 않은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재미있는 릴레이 경주와 스노우캣 전시, 점토 장난감 색칠 수업이 준비됐다.

모든 사람들이 파코바야 산(고로두하)까지 무료 케이블 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사할린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 Сахалинцы отметил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день снег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празднованию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дня снега. Во многих городах региона прошли тематические мероприятия. Для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подготовили веселые эстафеты, мастер-классы и бесплатный прокат спортивного инвентаря.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ались с самого утра. Здесь гости могли выбрать мастер-класс по душе.

Для активных сахалинцев провели бесплатные занятия с инструкторами. В рамках встречи начинающие сноубордисты и лыжники преодолевали страх, учились прави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инвентарь и делали первые шаги в скольжении.

Для тех, кто пока не готов 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экстремальном спорте, подготовили веселые эстафеты, выставку ратраков и занятия по росписи глиняных игрушек.

Также все желающие мог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бесплатными подъемами по канатной дороге на гору Парковую (Городух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일본영화제 개최

유즈노사할린스크 일본 총영사관과 일본 재단, '사할린 영화여가연합'은 주문화고문서보관부의 협조로 열리는 제20회 일본 영화제에 주민들을 초대한다.

행사 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장소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옥짜브리>영화공영관의 대강당이다.

- 영화상영표:
- 2월 4일 18:30 개막식, 19:00 "걸음" (12세이상 관람, 드라마, 1시간58분)
  - 2월 5일 15:00 - "직업: 뱀시"(12세이상, 코미디, 사극 드라마, 2시간6분) 17:40 - "도둑맞은 정체성"(18세이상, 탐정스릴러, 1시간56분)

(7면에 계속)

### 청년정부 회의 개최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주 청년정부 회의를 열어 1년 반 동안의 사업 보고를 심의했다.

주요 사업중 하나는 "극동 대출" 프로그램 개발이었다. 청년정부 측에서 서류 작업을 돕고, 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해주며, 사할린 젊은 가족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24시간 조인을 받을 수 있는 "2020 젊은이들에게 주택을" 텔레그램 채널이 만들어졌고 이미 1,800여명이 쓰고 있다. 작년에 청년 가정을 위해 1,400건의 주택 임대 대출이 발행되었는데, 제작년의 경우 870건이었다. 주지사는 2022년 "극동 대출" 프로그램으로 대출 2,500건을 목표로 삼았다.

청년정부 건설부 큐레이터 나탈리아 포드프루기나는 "주택을 얻는 과정을 보다 더 편안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게 와서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컨설팅을 받고 그 집을 직접 찾아보고, 부동산 중개인을 찾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들이 우리의 도움으로 다각적인 서비스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다.

엘레나 크라실니코와는 교육, 문화,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 성과에 대하여 전했다. 청년 정부는 1904년~1905년 러일 전쟁에 관한 프로젝트를 실시했다. 지금은 사할린의 모든 학교에서 7학년 학생들에게 러일전쟁의 사할린단계에 대한 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희귀한 문서가 포함된 "사할린:러일 전쟁

의 마지막 보루"란 저서가 출판되었다.

이 프로젝트로 여러 전시회와 네 번의 탐험을 실행하기도 했다. "노워크"순양함의 영웅적인 전투를 기리기 위해 8월 7일 새로운 군사적 영광의 날을 제정하자는 제안도 생겼다.

연방 및 지역 보조금과 스폰서를 통해 러일전쟁에 관한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350만 루블리를 유치했다.

"자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주니어 간호사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 시험을 치르고, 실습을 한후 자격증을 받는다. 이 연수는 이번이 세번째이며 그 동안 135명이 이 과정을 수료했는데, 이중 일부는 의료기관에 취업했다. "자선"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또한 자원봉사로 아픈 이웃들을 돌보기도 한다.

청년 정부 위원인 안드레이 조노브는 창의적인 공학기술개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 대학생, 일하는 청년 등 4개 연령층이 참여한다.

"9월에 우리는 교사들을 위한 첫 번째 대규모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 후 어린이들을 위한 첫 번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년 내내, 우리는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로봇 공학, 가상 현실 기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가르쳤습니다"라고 안드레이 조노브가 말했다.

공학에 관심을 가진 사할린 학생들이 니즈니노브고로드의 대회에 출전해 좋은 결과를 보여 3월 말에 열리는 전국

선수권 대회에 사할린주가 16개의 출전권을 따냈다.

알레리 리마렌코는 IT 부서를 감독하는 청년 정부 위원들이 지역 프로젝트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을 격려했다. 예를 들면, 사이클론의 여파가 있는 동안 도로와 마당의 눈을 치울 수 있도록 하는 대화형 지도가 출시된 것이다. 여름 기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가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경험이 다른 지역에도 확대될 계획이다.

청년정부의 또 다른 주요 업무 분야는 사할린 국립대학교의 발전과 관련이 있다. 아나 코로타예와는 학생들이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 예컨대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에는 CCTV를 설치하고 샤워 시설을 정비하고 학생들의 자습을 위한 장소도 마련했다. 청년정부 위원들은 또한 모든 학생들이 임대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도 이뤄지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는 전년 대비 사할린 국립대학교 신입생이 1.5배 늘었다. 사할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러시아내 유수의 대학에서 동시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졸업장 프로그램도 개발되었다.

사할린의 청년정부는 2020년 8월에 설립하여 활동적인 젊은 사할린 주민들이 선배 동료들의 지원을 받아 주택정책, 교육, 문화, 비즈니스, IT, 자원봉사, 애국교육 등의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실천하고 있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 [신PD의 K 리포트]

## 제 탓이요

방송국 스태프 동료들 사이에 점(占)보는 것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말연초에 더 많이들 보기도 하는데 특별히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니다. 점을 보고 와서는 점쟁이의 '용합'을 이런저런 근거들로 설명하거나, 받아들인 점괘를 서로 나누며 좋아하고 우울해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종종 지켜봤습니다.



소문난 곳은 예약하고도 몇달 기다려야 했다거나 멀리 지방까지 가서 원정 상담도 받는다고 하니, 점보는 것이 그렇게나 특이한 일은 아닌가 봅니다.

그냥 '재미삼아'인지 아니면 진지하게 자신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낫선 점쟁이에게 많이 의지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비과학적' 경험을 인생 컨설팅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는 것에 거부감이 없어 보입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유사사례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입시철이 되면 교문에 엿을 붙이는 풍습 아닌 풍습이 있었습니다. 끈끈하게 달라붙는 엿의 점성(粘性)을 빌려온 것으로 보이는데, 수험생이 엿처럼 철철 '붙어라'[합격하러]는 기원을 담은 하나의 '제의(祭儀)'였을 겁니다. 입시철이 대부분 겨울에 들어있는데, 시험이 끝난 후 추운 날씨 때문에 교문 벽에 더 단단하게 붙어버린 엿을 녹이느라 경비원들이 토지같은 도구로 지지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붙어라'는 기원으로 수험생에게 엿을 선물하기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는 끈적한 성질이 비슷한 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엿을 주는 게 '엿떡어라'는 뜻의 상스러운 연상 때문에 바뀌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상징을 동원하며 복을 비는 풍습이 시험에 관련해서 특히 더 많습니다. (문제를) '잘 풀라'는 뜻으로 수험생에게 휴지를 사주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잘 찍기'를 빌려주는 마음으로 포크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애교와 위트가 담긴 선물입니다. 휴지는 집들이 선물로도 많이 선택되는데, 새집에서 모든 일이 '잘 풀리라'는 뜻을 담은 것입니다. 휴지의 쓸모가 원래 목적 외에도 많네요.

점을 보거나, 엿, 떡, 휴지, 포크를 수험생에게 사주는 행동들은 현대 과학의 입장에서 모두 근거가 희박한 '미신적' 행위입니다. 엿과 떡이 공부 못하는 낙제생을 합격시켜주지도 않으며 휴지를 산처럼 쌓아놓아도 그 집의 어려움이 술술 그냥 풀리지는 않을테니까요. 그냥 소소한 기대가 담긴 우리 일상의 작은 재미일뿐입니다.

상징물을 활용해 기원하고 응원하는 것에는 간절함이 내포돼 있습니다. 앞에 예로 든 것들에도 각자 나름대로 애절함이 깊겠지만, 좀 다른 예를 두가지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정한수 떠놓고 하늘 보며 비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옛날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인데, 부정한 것이 들어갈까봐 동트기 전 새벽 시간에 샘물이나 우물물을 조심스레 길어와 떠놓고 달과 별을 보며 정성껏 빕니다. 전장에 나간 아니면 징용으로 끌려간 아들, 남편의 무사를 비는 그 기도의 간절함은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시리고 아립니다.

또 다른 간절함이 가톨릭 미사 중 나오는 '고백기도'에서 보입니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니다'라고 자기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절대자에게 청하는 도움과 기도가 온전히 나에게 오도록 앞서 반성하고 참회하며 스스로를 정화하는 작업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무엇을 해달라고 빌어봤자 그 기도가 제대로 들어질리 없을 것이라는 합리적 생각입니다. 먼저 잘못을 살펴 깨닫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뉘우친 후에야 그 기도에 작은 응답이라도 받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정화수에 담긴 간절함과 '내 탓이요'라고 스스로를 꾸중하고 나서야 은총을 바라는 마음들은, 앞서 엿이나 떡, 휴지, 포크에 담긴 이기적 욕망들과는 다른 결에 속합니다. 어머니의 절실한 마음에, 그리고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다'고 자책하는 참회의 가슴에, 기원은 복이되어 응답할 것입니다.

요즘 무속 논란이 뜨겁습니다. 논란의 당사자분들이 정화수 떠오신 어머니의 애달픔을 조금이라도 닮았는지, 아니면 '내 탓이요'의 참회를 먼저 했는지 다시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신원섭 KBS라디오 편성기획국장/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객원교수

## 사할린주, 어린이 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 시작

이번 주 초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사할린에 도착했다.

백신 "스푸트니크M"은 12~17세 아동·청소년 접종을 위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제1 아동진료소에 입고됐다. 12~17세 미성년자의 접종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무화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주보건부가 전했다. 접종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 사할린주에서 2,000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렸다. 러시아 및 세계 통계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들의 발병률이 증가 추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의 40개 지역에서 이미 오미크론이 확인되었다. 오미크론은 훨씬 더 높은 전염성이 이전의 변종들과 다른 점이다. 또한 아이들을 감염시키는 부분도 그렇다. 1차 대유행의 경우, 미성년자의 감염이 없었으나 지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누구나 감염되고 있다. 어린이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은 항상 특별히 경계해야 한다. 다섯 명의 사할린 어린이들이 매우 심각한 형태로 고통을 겪었다"고 사할린주의 전염병 총전문가 옥사나 솔로니나가 말했다.

"스푸트니크M" 백신은 "스푸트니크V"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어린이 예방접종이라는 특별요건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임상시험이 진행됐다. 어린이용 백신은 항원성분 농도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일반 스푸트니크에 비해 접종량은 5배 감소하였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성분이 좋은 면역 반응을 유지하면서 어린이들의 신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

어린이 예방접종시 주의사항은 성인 접종시와 동일하게 급성 질환의 유무이다. 만성 질환자는 주치의와 개별적으로 상담해야 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백신이 추가로 전달될 것으로 예상되며, 접수가 되는 대로 전 지역으로 백신이 배포될 것이라고 주보건부 보도부에서 전했다.

## 적십자, '귀국 후 첫 설날' 맞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에 설 선물 589세트 전달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 이하 적십자)는 26일(수) 귀국 후 첫 설날을 맞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에게 설 선물 589세트를 전달했다. 이날 안산 고향마을 복지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장예순 적십자 부회장, 주훈춘 노인회장 외 내빈들이 참석했다.



전달식에는 안산 고향마을 주훈춘 노인회장(사진 왼쪽 세 번째), 2021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인 전채련님(왼쪽 네 번째)과 장예순 대한적십자사 부회장(왼쪽 다섯 번째) 등이 참석했다. 사진=대한적십자사

이번 선물세트는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했다가 2021년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의 고국에서의 첫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떡국떡, 부침가루, 당면 등 설을 맞아 가정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

종 식료품과 부식 등 총 11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전달식에 참석한 영주귀국자

전채련(90세)님은 "꿈에 그리던 조국에 와서 행복하다. 이렇게 사할린동포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주는 적십자를 비롯한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적십자는 영주귀국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해 경기 안산 고향마을 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지원 캠프」를 2월 말까지 운영하여 국적취득과 생계급여 신청 등 관계 부처(법무부, 해당 지자체 등)와 연계하여 입주 초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바코뉴스)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Молодежные лидеры собрались в Москве



В Москве в гостинице «Holiday Inn Lesnaya» с 21 января по 23 января 2022г. прошел 6-й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FLC Re-Union (Россия и СНГ).

За прошедшие пять лет своего существования форум FLC Re-Union получил достаточную известность как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яющее активную корейскую молодежь. И поэтому, несмотря на текущие трудности, связанные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новой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форум собрал 45 участников из 15-ти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и стран, где проживают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Казахстан, Узбекист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Для тех, кто не смог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а форуме лично,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возможность участвовать в форуме посредством Zoom-конференции.

**Для справки:** FLC – это аббревиатура Future Leaders Conference. Глобаль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д таким названием проходит ежегодно осенью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Конференция собирает около 130 молодых корейцев из более чем 30 стран мира. И, конечно, среди них есть участники из России и стран СНГ. Они то и организовали 6 лет назад сообщество FLC CIS Club, которое и проводит в Москве ежегодный форум FLC Re-Union.

Задача сообщества FLC CIS Club – собрать вместе активную корейскую молодежь,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активистам познакоми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завязать общение, найти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ов и обменяться полезным опытом и знаниями.

Темы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на форуме составлены на основе пожеланий участников, поэтому их выбор показывает, чем сегодня интересуется корейская молодежь.

В первый день форума участники дискутировали на тему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идентичность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корейцев, как сохранить ее в условиях, когда все меньше число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говорит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жно ли сохранить идентичность, несмотря на это?

С яркой мотивационной лекцией на тему "Учись как дети" выступил создатель проекта Growu.me Вячеслав Кан. Потребность обучения сохраняется и для взрослых, как сделать это обучение максимально эффективным – вот что узнали участники форума из этой лекции. О проекте исследования Кобонди, уникального примера семейного подряда в земледелии на этнической основе, рассказал участник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Роман Ким из Корейского центра МИРИНЭ, г.Волгоград (<https://www.instagram.com/mirineorg/>). Об истории и текущ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центра НАН (г.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рассказала 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ь Асель Каденова.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центра - проведение летом 2022 года 6-го форума самульнори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 проекте информ-канала WOORI.SPB поведал его основатель Андрей Цай



из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Канал новый, но уже вносящий свою лепту в пополнение банка новостей о жизни коре-сарам. И, наконец, о замечательном проекте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меньшинств @Agasshin повела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его основатель Софья Джунг Шин Ан. Agasshin – это бьюти-зин, призванный помочь молодым людям из этно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понять свою идентичность, обрести уверенность через общение с единомышленниками.

В основной день форума, 22 января, к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по Zoom обратился известный писатель из Алматы Александр Кан, автор «Книги белого дня», который рассказал им о своем пути к осознанию собствен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О замечательных проектах MEDIA SARAM и YouTube-канале Остров Коре-Сарам рассказали их авторы Евгения Цхай и Владимир Хан. Это проекты, в которых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жизни на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усскоговорящ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умеют справляться с жизненными трудностями и добиваться успеха. Евгения Цхай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Ассоциации Коре-сар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 том, как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занимается эта организация в целях представления и защиты интересов коре-сарам, улучшения их жизн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Главным событием форума стали два круглых стола: «СМИ коре-сарам. Возможные пути развития»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ре-сарам. Возможные пути развития». Отраднo, что большин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форума активно вовлеклись в обсуждение насущных вопросов общественной жизни коре-сарам и провели весьма полезную дискуссию. Текущие проблемы обсуждены, что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троить эффективные планы на будущее. Все участники условились, что на следующем 7-м форуме обязательно будут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работы за год. Пожелаем же, чтобы все задуманное ребятами – реализовалось! На благо нашей диаспоры.

Оргкомитет форума FLC Re-Union приглашает к участи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 активной жизненной позицией. Связаться с сообществом FLC CIS Club можно по адресу эл.почты: flc.cis.reunion@mail.ru

Александр Пак

## ЮСМООК исключена из состава РООСК

22 января состоялась очере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На повестке дня стояло два вопроса: отчет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за 2021 год и разное. По обоим вопросам выступил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Она вкратце рассказала о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изации в прошедшем году: оказание помощи 1-ому поколению в проведении работы по переезду на ПМЖ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проведение и участие в брифингах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работа по внесению изменений в Спецзакон 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роведение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празднованию 15-летия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фестиваля Кимчи и фестиваля Пянсе, опы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органами власти, получение гран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других ведомств, и, конечно ж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Фондом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проведении на местах программы «Здоровья» для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нференци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ризн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организации за 2021 год 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ой.

Вопрос повестки РАЗНОЕ занял гораздо больше времени, чем отчет и был очень интересным.

Во-первых,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опросила поставить на баланс молодеж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обретенные в рамках гранта и программы «Здоровья» светодиодный экран, а также оргтехнику и автомашину, т.к. именно молодеж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занималас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осуществлением программ и проектов. Этот вопрос единогласно был решен положительно.

Далее Пак Сун Ок сообщила, что будучи на посту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в течение

5 лет, так и не смогла найти общий язык с руководством Углегор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ООСК и ЮСМОО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По мн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эти организации чинили препятствия в работе РООСК. Руководство ЮСМООК не откликнулось на просьбы организовать встречу президента с активом город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этому, президент выступила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исключить ЮСМООК из состава РООС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й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ЮСМООК Ан Ен Су был немного растерян. Выступая перед присутствующими, он сказал, что «Время все расставит по своим местам».

Советник РООСК Ким Хон Ди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за все время деятельности РООСК одной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задач стояла задача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несмотря на различные ситуации внутри РООСК, никогда руководство РООСК не выходило с подобным предложением. Он обратился к делегатам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тложить вопрос об исключении ЮСМООК из состава РООСК сроком на один год (до декабрьской конференции этого года). Однако его предложение не было поддержано делегатами. Подавляющее большинство проголосовало за исключение ЮСМООК, против исключения проголосовало 2 человека из 24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делегатов.

Так как корейцы из г.Углегорска не входят в состав РООСК как организация, конференция решила рекомендовать президенту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назначить нов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РООСК в Углегорском районе. Согласно Уставу нового представителя будут назначать 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иктория Бя)

## Создается новая организация

22 января 2022 г. ЮСМООК была исключена из состава РООСК. Узнав об этом, мы решили создать альтернативную общественную организацию. ЮСМООК, как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должна была работать со всем корейским населением города. К большому сожалению, этого не случилось, до многих горожан информация не доносилась, работа велась с узким кругом людей.

В период с 22 по 24 января 2022 г., когда

объявили о создании нов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 нам обратились более 180 человек, готовых работать на благо общества. Мы уведомили руководство РООСК, что намерены активно сотрудничать с ними. Приглашаем всех желающих в нашу организацию. О дате проведения собрания будет сообщено позже.

От имени инициативной группы Чон Ен Гон, Ю Н.Я., Ан Сухаги

## "Мастерская Хан" проводит уроки по культуре Кореи

С совмест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начался новый год для группы воспитанников ГКУ «Троицкий Детский Дом», которые для реализации своего проекта должны был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и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йцев на Сахалине и учащихся 6 класса МАОУ «СОШ №2» Корсаковского ГО, которые в этом году только приступили к изуч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Мастерская Хан»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педагога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е Анжелы развернула свою работу в уютном актовом зале МАОУ «СОШ№2», где участники впервые познакомились с основами корейской письменности, национальным костюмом и традициями корейцев, а также разгадали загадку мастера Хан:

Корея, кореец, алфавит,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стюм, бумага ханчжи, все с чем познакомились ребята на этом мастер-классе, все начиналось с имени мастера Хан и указывает на его принадлежность к Корее. Песни и розыгрыши, вкусный обед и подарки ста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м сюрпризом для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праздника.

– Особую благодарность выражаем директору МАОУ «СОШ№2» Л.Б. Челомбицкой з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а также учителю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О Дем Сун за подготовку наше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переди у нас еще несколько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 Аниве и Холмске. Если хотите, мы можем приехать и к вам! – поделилась педагог Анжела Пе.

(Наш корр.)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В дни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ожидают 207 тыс. гостей

В выходные дни по случаю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с 29 января по 2 февраля на острове Чечжудо ожидают 207 тыс. гостей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что на 35,2% больше, чем год назад. Как сообщила 25 января Ассоциация туризма Чечжудо, в период с 29 января по 2 февраля аэропорт Чечжу обслужит 1.244 регулярных рейса. Это на 5,9% больше, чем в обычные дни. В отелях категории люкс забронировано от 70 до 80% номеров, а в отдельных домиках для отдыха - примерно 80%. В связи с ожидаемым наплывом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в ближайшие дни местные органы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ланируют усилить меры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COVID-19 и потребовать от туристов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COVID-19 не позднее чем за 48 часов до их прибытия на остров.

##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зывает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поездок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обращается к жителям страны с настоятельной просьбой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поездок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ования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поскольку вариант коронавируса Омикрон с высокой степенью передачи активн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 стране. Об этом заявил 24 января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РК Ким Бу Гём. Миллионы людей в праздничные дни путешествуют по стране, чтобы встретить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или посетить туристические места. В этом году у южнокорейцев будут пять выходных дней - с 29 января по 2 февраля. «Я настоятельно прошу вас воздержаться от посещения вашего родного города ради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доровья всех», - сказал Ким Бу Гём. Он сравнил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личные встречи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ика с «подливанием масла в горящий огонь».

## В Сеуле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жертв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19 января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женщин,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сексуального рабства в период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провела 1.527-й по счёту митинг у бывшего здания посольства Японии в Сеуле. Это была первая демонстрация после того, как 14 января Комиссия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РК направила полиции рекомендацию принять меры по защите митингов, проводимых ассоциацией, от беспорядков и столкновений с консервативными группами. Такие митинги проводятся каждую среду.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Ли На Ён приветствовала рекомендацию Комиссии по правам человека и призвала полицию пресекать действия, препятствующие мирному проведению митингов.

## Власти Сеула призывают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йти ре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В связи с быстры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арианта коронавируса Омикрон администрация Сеула призвала иностранцев,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олице, пройти ревакцинацию. Для них подготовлены уведомления на 13 языках - корейском, английском, японском, китайском, вьетнамском, русском, монгольском, испанском, арабском, узбекском, индонезийском, тайском и филиппинском. Уведомления направлены в 50 учреждений поддержки иностранцев и места их компактного проживания. На ревакцинацию можно записаться как в режиме онлайн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сайте, так и в любом медицинском учреждении. Пройти ревакцинацию могут также нелегалы, записавшись по телефону, либо обратившись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цен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Данные о не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цах не передаются в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лужбу.

## Предприятия быстрого питания будут взимать залог за одноразовые стаканы

С июня этого года предприятия быстрого питания РК будут взимать залог за одноразовые стаканы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ростом объёмов пластиковых отход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экологии, размер залога составит 300 вон (0,20 доллара). Он определён, исходя из закупочной цены одноразовой посуды. Залог возвращается либо по месту покупки напитка, либо в любое другое заведение, участвующее в программе.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азрабатывается стандарт единого размера стакана для облегчени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и хранения. К дан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исоединятся около 38 тыс. предприятий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по всей стране. Торговые сети и рестораны,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доставкой, должны будут максималь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многоразовую упаковку. С 24 ноября крупным дисконтным магазинам, супермаркетам, мини-маркетам и пекарням будет запреще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лиэтиленовые пакеты. Начиная со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предприятия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запретят использовать влажные салфетки, содержащие пластик. Буду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лишь многоразовые тканевые гигиенические влажные полотенца и влажные салфетки без пластиковых добавок. Данные меры являются частью плана достижени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и перехода к устойчивой экономике замкнутого цикла.

(RKI)

## Александр Паку вручена верительная грамота от МИД РК

21 января 2022 года в гостинице Holiday Inn Lesnaya на полях 6-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форума FLC Re-Union состоялось вручение верительной грамоты Александру Денчеровичу Паку, уроженцу города Холмск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рист, общественный деятель, ныне проживает в Москве).

Александр избран в состав Комитета по выработке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при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Данный комитет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совещательным органом при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целью которого является обсуждение актуальных вопросов политики страны в отношении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ыработка предложений по внесению изменений в законы,



связанные с поддержкой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состав комитета вход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фильных министерств (юстиции, культуры и спорта,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аппарата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проч.),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

щества. Интересы зарубежных корейцев в комитете нынешнего 20-го созыва представляют корей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Япония, США, Китай, Азия (Вьетнам), а также в России и странах СНГ.

Ва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среди 3-х тем повестки первого заседания комитета, состоявшегося 23 ноября 2021г., была рассмотрена актуальная проблематика применения Закона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после чего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планы дальнейшей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оцесса пере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 историческую родину. МИ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идает 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аш корр.)

## Образ тигра как национальный символ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ступил 2022 год — согласно китайскому гороскопу — 1 февраля наступит год Тигра. В Корею тигр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храбрости и бесстрашия, а также имеет множество символических и основополагающих значений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Предлагаем читателю ознакомиться со статьей о тигре как о национальном символе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несколько образов тигра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различающихся по характеру и функциям (хищник, дух, антропоморфный тигр). С привлечением фактов из корейской истории автор прослеживает происхождение каждого из образов и в заключение обозначает место тигра в культуре современной Коре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битало множество тигров, поэтому Корею называют Страной тигра. Первое упоминание о тигре встречается в мифе о родоначальнике корейцев, Тангуне. Долгое время тигр существовал и по-разному воплощался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истории, что привело к созданию его разнопланового образа. Выделяют не менее трех образов полосатого зверя, различных по характеру, поведению и функциям: тигр-хищник, тигр-дух или посланник духа и антропоморфный тигр.

Первый образ — образ хищника является самым старым. Хищный зверь обычно изображен на петроглифах или пещерных фресках. Самое древнее подоб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появилос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в эпоху неолита. Это петроглифы Вангудэ в городе Ульсан. На них показаны детали жизни в условиях присваивающего хозяйства, а также могучий зверь, поднимающийся по скалам. Изображения хищника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формирования искусства не являются реалистичными, они упрощены по причине недостатка техники и навыков у древнего художника. Тигр узнается по полосатой расцветке и длинному хвосту. Данное изображение в петроглифах Вангудэ трактуется как надежда на удачную охоту.



Другой образ тигра как хищника представлен на фреске в гробнице. Жанр фрески «На охоте» считается самым известным в эпоху Когуре. Это государство в районе современной Маньчжурии и северной част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уществовало с 37 г. до н. э. по 668 г. Здесь было развито военное искусство, поэтому часто изображения носят название «На охоте». Они показывают мощность и ловкость хищника.

Тигр, изображенный в исторических материалах в виде страшного хищника, также связан с охотой на него. Согласно военному положению судебного кодекса эпохи Чосон, Кенгук Тэджон собирал войско с целью охоты на дикого зверя. Раньше в Корею насчитывалось огромное количество особей тигра. Они периодически спускались с гор в близлежащие деревни, чтобы поохотиться, поэтому появление тигра вызывало у людей страх. В Чосон официально занимались охотой на зверя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чтобы обезопасить население от нападений тигра.

Сюжеты истор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с героем-тигром бывают двух видов: о неудачной и удачной охоте на хищника. В рассказах первого типа охотник погибал, второго — храбрый охотник одерживал победу над диким зверем и получал за это награду или повышение до уровня чиновника. В те времена вред, приносимый опасным зверем, считался общественной проблемой. Успешное освоение навыков охоты на страшного хищника могло обеспечить охотнику высокое положение в обществе.

Физические параметры тигра — крупное тело и огромная сила — вызывали у людей не только страх, но и уважение. В связи с этим тигр постепенно приобрел сакральные черты.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располагается много горных хребтов, поэтому тигр ассоциировался с горным духом.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м искусстве тигр, обладающий святостью, изображен в гробнице Когуре, на картине в храме монастыря горного духа.

(Продолжение на 6-ой странице)

##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2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месяц — 92 руб. 8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помощью федеральных средств будем стимулиров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оторую провел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Ф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тем стало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держивание стоимости «квадрата».

— Федеральные и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намерены развивать программ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На льготных условиях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будут получать врачи, учителя и другие сотрудники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Чтобы существенно нарастить объемы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м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м активно привлекать федер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строено 90 арендных домов — это более 3500 квартир для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Стоимость аренды квартиры в таких домах существенно ниже среднерыночной по региону. Спустя два года у жильцов появля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иобрести квартиру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на льготных условиях. Ставка по ипотеке составляет от 0 до 7 процентов годовых.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островах сформировано 370 перспективных участков под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реть всего строящегося в регионе жилья — арендное и социальное.

На заседани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отметил, что хорошие результаты в решении жилищного вопроса показывают программы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ипотека». Благодаря им земельные участки получили около 100 тысяч человек, а улучшившие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смогли почти 33 тысяч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также обратил внимание, что стоимость квадратного метр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имерно на 15% выше, чем в среднем по стране. Чтобы стимулировать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ступного жилья, а также объектов транспортной, коммунальной, социаль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будет скорректирован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о. Это решение стало оперативной реакцией росси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на обращени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журналистов к Владимиру Путину в рамках его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декабр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реди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х те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также отметил вопросы доступности медицины,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 развития безуглеродн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ланирует вступить в программ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оликлиник с помощью механизма концессии и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мастер-план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городов, чтобы получить федеральное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на инженерное обустройство.

В числе приоритетных вопросов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властей — повышен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доступности. На базе островной «Авроры» создана Един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авиакомпания. По доступным ценам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можно улететь в Красноярск, Петропавловск-Камчатский, Комсомольск-на-Амуре и Советскую Гавань, из Шахтерска, Ноглик и Охи — в Хабаровск. Развивается малая авиация,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чались полеты в Смирныховский и Поронайский районы. Вышли на курильский маршрут два новейших грузопассажирских судна: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и «Павел Леоно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успешно реализует программу газификации, запущенную совместно с Газпромом по инициативе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Если в 2018 году показатель газификации региона составлял всего 14%, то теперь — более 50%.

Все эти меры, повышающие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изваны решить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й вопрос. Теме демограф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Ф и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РФ в ДФО Юрий Трутнев уделяю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На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сессии было отмечено, что для притока населения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еобходимо создавать условия для опережающего роста качества жизни. Это означает хорошую транспортную доступность и надежную связь между регионами, современ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качественную медицинскую помощь,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и перспективы карьерного роста.

## На юге Сахалина завершены основные работы по ликвидации последствий сильнейшего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циклона

О результатах расчистки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от снега губернатору Валерию Лимаренко в ходе совещ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доложили руководите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Корсаковского и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ов.

— Хотелось бы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кто участвует в

расчистке наших городов и сел от снега. Вы выполнили огромную работу. И сделали это качественно. Это видно по обращениям, количество которых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уменьшилось до минимальных значений. Сахалинцы вам благодарны. Спасибо,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январе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ие полигоны вывезено почти полтора миллиона кубометров снега — столько снега, обычно, вывозилось за целый год.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в городе для проезда открыты вс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дороги, внутриквартальные проезды, подъездные пути к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м учреждениям и дворы. Практически полностью расчищены тротуары и пешеходные дорожки. Обеспечен доступ к мусорным площадкам. Уложиться в сжатые сроки позволили два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полигона — они были открыт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Также по инициатив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из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в областной центр доставили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спецтехнику. Её задействовали в Дальнем.

Сейчас рабочие расширяют транспортные артерии до нормативного состояния, приводят в порядок пешеходные части. Продолжается вывоз снега с придом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Задействовано более 100 человек и 330 единиц техники. Для полного завершения всех работ потребуется две недели.

Кроме того, дороги и дворы расчищены для проезда в Долинском и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ах.

Хорошим подспорьем для служб и жителей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тала интерактивная карта, которая позволяет узнать о расчистке региональных дорог, а также статус каждой конкретной улицы, внутриквартального проезда или двора. Зеленый — работы выполнены, желтый — в работе, красный — на очереди, синий — работы в плане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С сегодняшнего дня этот сервис также будет доступен жителям Холмского района. До конца недели такую карту получат все муниципаль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Сообщения, касающиеся интерактивной карты, можно направлять через портал «Сахалин.онлайн». Для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жителями работает колл-центр: 312-780. Звонки принимаются с 9.00 до 18.00.

Напомним, с 12 по 15 января юг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ходился под воздействием мощного циклона. Основной удар пришелся 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где за три дня выпала почти двухмесячная норма осадков.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Образ тигра как национальный символ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на 5-ой странице)

В гробнице Когуре белый тигр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мистическим духом наряду с драконом, фениксом и черепахой, нанесенными на стены погребальных каменных камер. Они изображены в виде мифических зверей и символизируют космический порядок. Белый хищник с крыльями считается святым зверем, спасающим от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Тигр в храме монастыря горного духа описан более реалистично по сравнению с фантастическим зверем в гробнице. Картина в монастыре состоит из двух различных типов. Первый тип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страшного, хищного зверя как самый старый образ хищника. Второй относится к ручному, ласковому, редкому зверю и вызывает чувство приближенности к нему. Это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грозный зверь постепенно приобретает свойства Будды. Образ тигра как горного духа или его посланника в монастыре несет коннотации храбрости и милосердия.

Как гласят предания, тигр в своем сакральном образе спасает героя, рождает основа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а. Необыкновенное рождение или воспитание правителя обеспечивали и усиливали абсолютность и законность власти. К тому же в легенде подчеркиваются интуитивное предчувствие и материнская любовь редкого хищника. В этом образе частично отражено представление, что грозный зверь оберегает от опасности.

Полосатый зверь с религиозными чертами отражается и в гробнице Когуре, и в храме монастыря горного духа. В гробнице белый хищник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мифических зверей в контексте того, что он избавляет человека от бедствия. В храме монастыря тигр изображен как горный дух или его посланник и имеет разнохарактерные черты. Он изображается как страшным, так и ручным. Храбрость и мощь присущи хищному зверю, а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сть и милосердие исходят от священного Будды.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корейское традиционное верование отличается приписыванием тигру священных качеств. Полосатый хищник свящ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упоминается в религиозных верованиях во многих регионах Кореи. Охотиться на сильного зверя было гораздо труднее, чем на других животных, поэтому к могучему зверю относились с уважением, его образ боготворили. Такое отношение осталось и при переходе от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к современному обществу, дикий зверь по-прежнему носил культовый характер. В эпоху народного хозяйства тигра боялись, так как он спускался в села и охотился на домашних животных. Приручить крупного хищника было невозможно. И тогда начали считать, что могучий зверь может избавить село от злых духов и охранять его.

В антропоморфном образе тигра хищнику придают человеческие черты, как положительные, так и отрицательные. Он выступает положительным героем в

исторических источниках и рассказах, является верным защитником человека. По содержанию исторических источников храбрый зверь спасает или охраняет героев и других людей. Сильный хищник данного типа трактуется как символ верности. Вторым типом является тигр, который отвечает добром на добро. Он жертвует собой для людей, которые его любили или спасли. Другими словами, тигр совершает морально-нравственные поступки, как человек.

Последним положительным типом является мудрый тигр, обладающий знанием об устройстве мира. Этот хищник честнее и справедливее человека. Пак Дживон, ученый эпохи Чосон утверждал, что могучий зверь поступает справедливо, а человек — эгоистично, стремясь извлечь пользу для себя. По мнению ученого,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научиться правилам нравственности от природы.

В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м искусстве, как и в литературе, тигр выступает как положительным, так и отрицательным героем. Положительный образ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вязан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военного дела. В эпоху Чосон во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называли тигринными чиновниками. На их форме изображался храбрый хищник. Также тигр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могущество, силу дворянина Чосон. Например, на картине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онходо» изображены тигр и сосна, которые символизируют благородную идею и устойчивый характер дворянина. Образ дикого зверя олицетворял мужественность, как на картине «Енходо» («ен» — «дракон», «хо» — «тигр», «до» — «картина»), где изображена битва между сильными противниками: тигром на земле и драконом на небе.

Дикий зверь как отрицательный герой появляется обычно в народном искусстве. В преданиях подмечают глупость, жадность и жестокость хищника. Эти черты ассоциировались с жадным дворянством, каким его видел народ.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творчества народ выражал чувство вражды и отвращения к дворянскому сословию. Здесь сильный зверь символизирует жестокость власти, угрожающей бессильному народу. В народных сказках тигр описывается как персонаж, обманутый зайцем, сорокой, даже сушеной хурмой. В одном из сюжетов он пытается подняться на небо, держась за сгнившую веревку.

Полосатый хищник с отрицательными чертами присутствует в корейских народных эпических песенных сказках,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пхансори». Здесь тигр также олицетворяет жадного и глупого дворянина. Сильный зверь, символизирующий эгоистичного, жадного дворянина, мучает других бессильных животных — слабый народ. В этом сюжете народ проявляет сарказм по отношению к высшему классу, поэтому образ тигра отличается пассивностью.

В народной живописи по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безумный, глупый, но и потешный тигр — герой, высмеиваемый народом. На Джакходо («джак» — «сорока», «хо» —

'тигр', «до» — 'картина') кисти народного художника XIX в. дикий зверь изображен беспомощным. Косоглазый, с пухлыми лапами, хвостом, направленным вниз, униженный сорокой хищник вызывает скорее смех, чем страх. По мнению Чой Джунсик, создание юмористического героя-тигра было вызвано оптимистично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Подводя итог вышесказанному, отметим, что тигр как положительный герой изображался в основном в творчестве дворян, как отрицательный — в народном искусстве. Такая качественная оценка тигра зависит от намерения художника, его принадлежности к определенному социальному классу.

Таким образом, тигр стал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культурных прототипов в Кореи. До сих пор созд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образы полосатого хищника как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так и в различных видах культуры.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тигр является символом Кореи. Некотор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 качестве логотипа используют изображение зверя. Морда тигра служит символом футбольной команды, которая принадлежит городу Ульсан с 1983 г. Тигренок Ходори («хо» — 'тигр', «дори» — 'мальчик') в национальном костюме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как талисман лет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Сеуле в 1988 г. Символом зимних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2018 г. в южнокорейском городе Пхёнчхан стал белый тигр Сухоранг, имя которого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защитник'. Белый тигр выбран талисманом предстоящих Игр не случайно: как священный хранитель в корейской мифологии, он будет защищать спортсменов,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спортивного события. Кроме тог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преемственность идеи, связь с предыдущим талисманом-тигреном.

Главный герой совреме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комикса (веб-манхва) — отважный тигр. Цветной комикс «Старший брат — тигр» публикуется по субботам на веб-портале под названием Naver с 2015 г. Содержание этого комикса основано на реаль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событиях, однако встречаются и фантастические элементы. Недавно в конце 2015 г. вышел в свет фильм о корейском тигре «Дэхо» («дэ» — 'большой', «хо» — 'тигр'), в котором рассказывается о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и между храбрым охотником и диким зверем — последним тигром в Кореи. Действие фильма относится к началу XX в. Выпуски фильма и комикса формируют полож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человека к полосатому хищнику, демонстрируют тигра в качестве элемента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одводя итог, отметим, что разноплановый образ тигра начал формироваться в Кореи с первых лет существ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и к настоящему времени утвердился как культурный символ Кореи.

Чой Чжунин, аспирант кафедры культурологии и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 '예술과 문화'로 바라본 동학농민혁명

## 제1회 세계혁명예술 전주국제포럼서 여러 나라의 혁명 '문학과 예술'로 소개

동학농민혁명과 세계 근대혁명을 소재로 한 국제포럼이 전주에서 열렸다.

동학을 예술로 풀어내고 동학의 세계화를 꾀하기 위해 마련된 이 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 영국, 러시아, 독일, 남미 등 여러 나라의 혁명이 문학과 예술로 소개됐다.

전주시는 21일 라한호텔에서 김승수 시장과 강동화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의 혁명 문학과 영화'를 주제로 제1회 동학농민혁명 기념 세계혁명예술전주국제포럼을 개최했다.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작으로 매년 다양한 선양사업을 펼쳐온 시는 동학 정신을 세계 근대 혁명의 도시들과 공유하고 동학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이를 일정의 국제포럼을 준비했다.

이날은 '문명전환기 혁명의 기념과 재현'을 주제로 한 서울대 박명규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의 동학농민혁명과 일본의 근대혁명기 문학과 ▲독일농민전쟁과 러시아의 혁명문학·영화 ▲아일랜드 농민혁명과 체 게바라 혁명문학·영화 등 3가지 세션으로 나뉘어 학술포럼이 진행됐다.

학술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문병학 시인이 '한국 현대문학에 나타난 동학농민혁명'을 발표했으며, 이어 일본 삿포로 대학의 요코시마 고지 교수가 '시바료타로와 타올라라 검'을 주제로 막말유신기 일본의 혁명인식과 혁명문학을 소개했다.

뮌하우젠 박물관의 토마스 뮐러 관장이 독일의 대표적 사회개혁운동 지도자였던 토마스 뮌처가 등장한 독일농민전쟁 영화를 소개하며 독일영화에서 그리는 사회주의 운동과 독일농민전쟁을 소개했다.

엘레나 이코니코바 러시아 사할린국립대 교수는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의 작품 '고뇌 속을 가다'와 이를 각색한 영화에 나타난 혁명의 이미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영국 셰필드대학의 퀴바 닉 고바이드 교수는 문학과 영화에서 그린 아일랜드 혁명을 소



전주시가 21일 라한호텔에서 김승수 시장과 강동화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의 혁명 문학과 영화'를 주제로 제1회 동학농민혁명 기념 세계혁명예술전주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국과 일본, 영국, 러시아, 독일, 남미 등 여러 나라의 혁명이 문학과 예술로 소개됐다.

개했고 남미 혁명의 영웅 체 게바라의 실제 친조카이자 작가인 마틴 게바라 두아르테는 체 게바라를 소재로 한 문학과 영화를 다뤘다.

이날 학술포럼은 유튜브 '전주시 LIVE'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으며, 포럼이 끝난 후에는 전주시청 책가동도서관에서 프랑스 혁명을 다룬 영화 '원 네이션'이 상영됐다.

포럼 이틀째인 22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일본 근대혁명기를 소재로 한 '바람의 검 신선조'와 우리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녹두꽃'이 각각 상영됐다.

시는 이번 국제포럼을 발판 삼아 ▲동학농민혁명과 예술의 접목 ▲동학 관련 서적 번역 등 동학의 세계화 ▲혁명도서관 조성 등 전주에서만 가능한 다양한 동학 관련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김승수 시장은 "이번 포럼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기념사업을 역사적 사료를 바탕으로 규명하고 해석해온 그동안의 방식에서 벗어나 혁명의 예술과 문화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국제포럼의 주제를 건축과 미술,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시켜 전시와 공연, 영화 등을 결합한 문화행사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외통신]

# 충남도, 사할린한인회 찾아 감사의 뜻 전해

충남도는 26일 서천 사할린한인회를 방문해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추진한 사할린 한인 연계 사업인 '나는 원래부터 대한민국 사람입니다'가 외교부로부터 공공외교 협업상을 수상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한 도내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도는 외교부 공공외교 협업상의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만 원을 사할린한인회에 후원하고 지역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에 지속적인 사업 참여를 요청했다.

또 올해 추진하는 '사할린 한인 현지 3~4세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역사문화 알리기' 사업을 주제로 사할린한인회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역 사할린 한인 어르신들의 사회적 역

할과 참여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수렴한 사할린한인회의 경험과 의견을 검토·반영해 러시아 사할린주 및 극동 지역 교류 협력 사업의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만표 도 국제통상과장은 "이번 공공외교 협업상 수상은 국내외 사할린 한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의 아픈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여러 교류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신북방외교의 교두보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총 219명(천안 70명, 아산 73명, 서천 76명)의 사할린 한인이 거주 중이며, 이들은 1945년 이전 사할린으로 강제이주 당한 한인 1~2세로 2010년을 전후해 도내 영주 귀국한 사람들이다.

(천안일보)

#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 설맞이 나눔 행사 개최

아산시 신창면(면장 임항선)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서광석)이 지난 25일 설맞이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행복키움추진단 조미김 100박스 ▲신창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떡국떡·사골국 50세트 ▲㈜씨케이텍 선물 세트 100개 ▲㈜케이지오토 라면 300상자 ▲온양폐차장 계란 5종 40박스 ▲명성감리교회 선물 세트 16개·라면 16박스 ▲금오양돈영농조합 100만 원 ▲청목환경 100만 원 등 다양한 기부 금품이 모였다.

기부 물품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새터민, 사할린 영주귀국자 등 취약계층 850여 가구에 전달됐다.

서광석 단장은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을 통해 기부금품을 전해주시는 기업체 및 단체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정성을 담은 후원품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항선 신창면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임인년을 맞아 신창면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투데이)



▲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원 나눔 행사 기념촬영 © 아산투데이

# 이모저모

## (2면의 계속)

· 2월 6일 15:00 - <마에다>주식회사의 판타지마케팅부(12세이상, 코미디, 1시간55분), 17:40 - <인공지능의 몰락(18세이상, 공상과학 스틸러, 2시간11분)

입장은 무료이다.

티켓은 상영 전날 옥짜브리 영화관에서 구할 수 있다.

문의 전화는 8 (4242) 224109로 가능하다고 <영화여가연합>에서 전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фестиваль японского кино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Японский фонд, "Сахалинское кинодосуговое объединение" при поддержк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приглашают на 20-й юбилейный фестиваль японского кин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с 4 февраля по 6 февраля.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большой зал ККЗ "Октябрь",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асписание показа фильмов:

· 4 февраля: 18:30 —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19:00 — "Шаг" (12+, драма, 1:58)

· 5 февраля: 15:00 — "Профессия: бэнси" (12+, комедия, драма, исторический, 2:06), 17:40 — "Украденная личность" (18+, триллер, детектив, 1:56)

· 6 февраля: 15:00 — "Отдел фантастического маркетинга корпорации "Маэда" (12+, комедия, 1:55), 17:40 — "Крах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теллекта" (18+, фантастика, триллер, 2:11).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Билеты будут доступны в кассе ККЗ "Октябрь" за день до сеанса.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22 41 09,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инодосугов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 유즈노사할린스크, 포토크로스 우승자 선정

청년 주도 센터에서 1월 22일과 23일에 새롭게 경신된 겨울 포토크로스가 열렸다. 행사에는 아마추어 및 전문 사진작가 60여명이 참여했다.

포토크로스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청년주도센터의 전통 경연으로써 사진 콘테스트와 도시 오리엔테이션을 결합한다. 올해는 '이건 그린치의 잘못된이야', '대조', '1초 전', '시간의 흔적', '겨울을 통해(이상한 나라) 보는 유즈노(유즈노사할린스크)' 총 5개 주제로 하루간 사진을 찍어야 했다. 주제는 지난 1월 22일 인스타그램 청년주도센터 공식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로 발표했고, 크로스는 어떤 순서로도 할 수 있지만 카메라 한 대로 촬영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전했다.

"포토크로스"의 결과는 아트 레지던스 "마야크"에서 팀별 및 부문 수상자로 나눠 발표했다.

팀 순위는 다음과 같다.

· 1위, 팀 "Stop Camera".

· 2위, 팀 "밝혀진 진실들"

· 3위, 팀 "순간"

부문별로 심사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우승자를 정했다.

· "가장 기술적 장면"부문 "포투스"팀

· "가장 감정적인 장면"부문 "2곱하기 2는 4"팀

· "가장 좋게 설치된 장면"부문 "포토그로푸홀"팀

시상식이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원하는 참가자들에게 한 해 출품된 작품들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했다고 청년주도센

터가 전했다.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предел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Фотокросса"

Центр молодёжных инициатив провёл обновлённый зимний "Фотокросс" 22 и 23 января. В нё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60 фотографов-любителей и профессионалов.

"Фотокросс" — это традицион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Ц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ля творческой молодёжи. Оно совмещает в себе фотоконкурс и городское ориентирование. В этом году командам предстояло за сутки сделать снимки на пять заданных тем: "Это Гринч виноват", "В контрасте", "За секунду до", "След времени" и "Южный в зеркальце". Их игрокам объявили 22 января в прямом эфире на официальной странице центра молодежных инициатив в Instagram, а также напомнили, что кроссы можно выполнять в любой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сти, но снимать нужно на один фотоаппарат.

Итоги "Фотокросса" озвучили в арт-резиденции "Маяк". Их подвели в командном зачёте и выявили победителей по номинациям.

Среди команд места распределились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 1 место — команда Stop Camera;
- 2 место — команда "Голые факты";
- 3 место — команда "Момент".

В номинациях члены жюри отметили следующие работы:

- "Самый техничный кадр" — команда Fotus;
- "Самый эмоциональный кадр" — команда "Дважды два четыре";
- "Удачно поставленный кадр" — команда "Фотогроздь".

После церемонии награждения члены жюри с желаящими ребятами провели "работу над ошибками" по конкурсным снимкам, сообщает ЦМИ.

(с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 81회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 모집 공고

- 기간 및 장소
  - 원서 접수 기간: 2022년 1월 11일~1월 31일(평일 09:00~17:00)
  - 원서 접수 장소: 사할린 한국교육원(전화 4242-505-696)
- 원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수용인원(100명)에 따라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직계 가족 외에 대리 접수 불가.
- 응시 수수료: (TOPIK1) 1,000루블, (TOPIK2) 1,200루블
- 접수시 준비물: 증명사진 1매(3cm×4cm), 응시 수수료, 신분증
- 성적 발표: 2022년 11월 25일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무료 출력 가능
- 시험 일자: 2022년 4월 10일(일)
- 시험 장소: 사할린한국교육원(사할린한인문화센터 내)

### "사할린한국교육원" 2022-2023학년도 수강생 모집

- 신청기간: 2022년 1월 17일~ 1월 31일
- 신청희망 강좌
  - 한국어 : 입문, 초급, 중급, 고급 (충남선문대학- 온라인 수업), 토픽(II) (온라인수업)
  - 문화교실 : 한국문화(중급, 초급), 세계민속춤, 재미난 한국어(원장-노래와 한자성어)
- 수업 시작일 : 2022년 2월 7일(월)
- 문의 전화 : 50-56-96

### «Центр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объявляет набор слушателей на 2022-2023 учебный год

- Запись: с 17 января по 31 января 2022 г.
- Приглашаются все желающие
  -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вводный, начальный, средний, высший (при поддержке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нмун, занятия онлайн) уровни, ТОПИК II (занятия онлайн).
  - Уроки культуры: Культура Кореи (средний, начальный), традиционные танцы мира, весёлый корейский (занятия с директором - песни и иероглифы)
- Начало занятий: 7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50-56-96

###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Реклама

##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http://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b>Издатель:</b>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워토리아</p>	<p><b>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b>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b>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b>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a href="http://cafe.naver.com/sekoreasinmun">http://cafe.naver.com/sekoreasinmun</a>.</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